제9강 베르그송의 비판과 사상의 성격

(1교시)

◆image와 베르그송의 비판
※학습목표: 베르그송이 말하는 이미지를 알아보고, 여러 사상에 대한 베르그송의 비판으로 베르그송의 생각에 접근한다.

▲이미지image
-전통철학자들은 becoming을 넘어선 being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버클리에게는 becoming이 being이다. 우리의 관념 바깥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관념이다.
-베르그송은 제1성질과 제2성질을 구분한 것은 좋지만, esse est percipi는 아니라고 한다. 베르그송은 이미지들의 세계라 한다.
-데카르트는 이미지를 모두 가짜로 보고 reality로 간다. 버클리는 이미지를 진짜로 보고 ideality로 간다. 하지만 베르그송은 둘 다 거부한다. 온전한 reality나 온전한 ideality는 생각의 산물이다. 그렇게 주장하기 이전의 출발점은 image의 세계다.

▲거꾸로 선 스피노자주의
-베르그송은 이원론으로 가서 일원론으로 간다. 스피노자식의 신, 속성, 양태의 영역이 아니라 그의 귀납으로 나아가려한다. 그래야만 스피노자보다 더 의미 있는 스피노자로 간다는 뜻이다.

▲구성주의에 대한 비판
-베르그송은 제1성질과 제2성질을 거부했듯이, 실체와 현상의 이분법을 거부한다. 경험을 통해서 사물을 더 알 수 있고, 심층으로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 심층에 경험과 완전히 떨어진 알맹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베르그송류의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개념을 가지고 보는 모두를 거부하는 것이다. 개념이 먼저 있고 그것을 가지고 구성해서 보는 것이라는 구성주의를 비판한다. 그래서 구성주의가 아니라 내재주의 혹은 자연주의다.

▲19세기의 두 심신론
-19세기가 되면 사변적이었던 심신론이 본격적인 실증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된다. 사실 형이상학은 physica의 기반이 서지 않으면 의미 없다. 그래서 19세기의 생리학, 심리학, 정신과학 등의 발달은 새로운 심신론이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만들었다.
-19세기의 심신론은 물리화학적 환원주의와 반환원주의인 생기론vitalism으로 구분된다. 환원주의는 생리현상이나 정신현상을 물리화학으로 환원하려는 것이고, vitalism은 그럴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베르그송은 세려된 vitalism이다. 그리고 이때 무의식과 시간을 함께 다룬다.
-무의식을 다루는 철학은 멀리 보면 인간을 동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유심론spiritualisme의 전통을 잇고 있다. 전통철학자들의 주체는 일종의 사진 감광판 역할을 한다. 하지만

www.artnstudy.com

spiritualisme전통에서는 인간이 움직이면서 지각한다. 그래서 운동성을 강조한다. 이는 의지와 노력의 강조이기도 하다.

▲유물론에 대한 비판
-19세기에 브로카와 베르니케의 연구로 정신현상이 결국 뇌의 효과라는 주장이 나온다.
-베르그송은 뇌의 국제론localisation cérébrale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하나의 기능이 작동하려면 뇌의 한 부분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 뇌의 다른 부분들도 함께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뇌도 미시적으로 운동을 한다. 그래서 운동성을 고려해야만 뇌의 심리현상이 이해된다고 주장한다.

www.artnstudy.com

(2교시)

◆베르그송 사상의 성격
※학습목표: 베르그송 사상의 성격을 대략적으로 살펴본다.

▲베르그송의 위상
-기계론 및 유물론에 대한 비판. 신체의 고유성, 생명의 일차성, 정신의 실재성을 강조. 생명의 철학. 프랑스 'spiritualisme'의 적자다.
유물론적 실체화 및 유심론적 실체화 양자를 모두 거부하며 이미지, 운동성, 시간에서 출발. 내재성의 사유다. 19세기 과학의 정점에 서 있다.
이원론에서 출발해 일원론을 지향. 데카르트에서 스피노자(/라이프니츠)로의 길이 모델. "라이프니츠 이래의 형이상학."

▲이미지의 존재론과 실재론
-『물질과 기억』은 이미지 개념을 출발로 삼아서 몸과 마음의 관계를 해명한다.
-베르그송은 물질을 이미지들의 총체라고 규정한다. 이때의 이미지는 관념론자 표상이라 부르는 이상의 존재이고, 실재론자가 사물이라 부르는 이하의 존재다. 즉 사물과 표상의 중간에 있다.
-이미지로서의 현상세계는 자연법칙에 따라 운동한다. 그런데 특이한 이미지로서의 신체 이미지가 있다. 그것이 움직이면 이미지가 달라지고 그냥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들을 선별한다.

▲이미지란 무엇인가?
-지속(연속성, 다질성, 창조성을 띤 시간)의 단면들, 조각들이 이미지들이다.
-이미지들의 존재는 우리 신체에 상관적이다. 우리 신체를 떠나서 별개의 이미지들은 없고, 신체와 언제나 맞물려 있다.
-살아있는 신체, 즉 정신과 함께하는 신체는 행동하고 지각하고 감정을 느낀다.

▲행동과 지각1
-신체는 행동의 가능성possibility에 입각해 이미지들을 선택한다. 가능성이란 미래의 시간을 이미 신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신체가 이미 미래를 감지하면서 움직인다. 그리고 지각도 이미 미래를 감지하면서 움직이는 내 신체에 입각해서 지각한다.
-지각perception자체가 이미 선택을 함축한다. 그래서 지각을 순수 인식적 맥락에서가 아니라 행동, 삶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지각해서 거기에 입각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전재해서 지각이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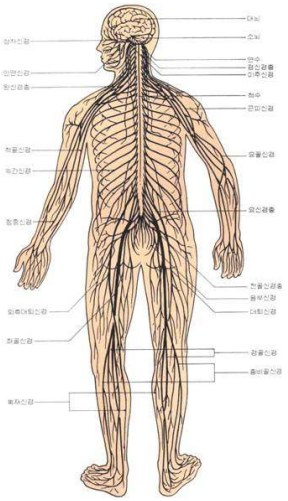
▲행동과 지각2
-실재론realism: 모든 이미지들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주체를 설명하지 못한다.
-관념론idealism: 주체에서 출발함으로써 객관세계의 실재를 파악하지 못한다.

www.artnstud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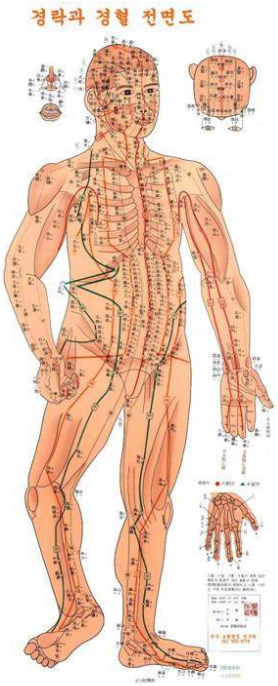
-두 경우 모두 '표상'에서 출발. 행동에서 출발해야 한다.
-유물론materialism: 의식 현상의 고유함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원론dualism: 몸과 마음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베르그송의 출발점
-베르그송은 이미지들과 시간, 운동, 행동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객 이원론을 거부해야 하고, 물질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와 그 활동으로서의 지각을 이분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근대의 표상하는 주체에서 현대의 생성하는 주체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 베르그송의 주장이다.

*참고자료



www.artnstudy.com



강의에서 쓰인 신경계와 경락도

▲심리학적 배경

-베르그송은 비표상주의non-representation다. 표상주의를 거부하고 뇌를 표상기관이 아닌 운동기관으로 본다.

-신경계의 발달은, 가능한 행동의 영역이 넓어졌음을 뜻한다.

-표상은 운동의 결과다. 칸트의 선험적 조건들도 진화의 결과다.

www.artnstudy.com